익산시의회, 추석 사회복지시설 찾아 나눔 실천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 의원들이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입소자와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문은 최종오 의장, 한동연 부의장,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여했고, 오산면 소재 남전노인복지센터와 덕기동 소재 홍주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위로했다.

최종오 의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익산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매년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협의회,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문화 실천 다짐

전주시와 전주지역 여성단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시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이)는 5일 시청강당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서로가 존중하는 행복한 동행, 모두가 신바람 나는 전주'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성 평등 향상에 모범을 보인 시민과 단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여성친화기업 등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여성, 남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실천다짐을 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전주시립합창단의 기념공연도 펼쳐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억울함으로 다가서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며, 우리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나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함께하자"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1일~7일)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의거해 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기념행사, 유공자 격려 등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김재훈기자

남원시, 생활현장투어 특별점검 나서

남원시 시민소통실(실장 이은주)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남원시 120민원봉사대가 공공이용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120민원봉사대에서 생활민원 현장투어 합동점검반을 구성, 자전거 투어 및 차량현장 투어로 공공시설 및 주요관광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 쓰레기 적치물, 통행불편사항, 도로 위험요인 등 취약지역과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120민원봉사대에서 즉시 처리하고, 장비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은 관계부서에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이은주 시민소통실장은 "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항상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이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박원희 홀썸 대표, 양념불고기 7320팩 기탁

(주)홀썸(대표 박원희)이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4천만원 상당의 양념불고기 7,320팩을 기탁하며, 명절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 자리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원희 (주)홀썸 대표, 신종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기탁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원희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주)홀썸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신중앙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5일 추석을 앞두고 신중앙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품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이기동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 태풍까지 오고 있어 무거운 마음"이라며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청년마을 프로젝트 '술 빚는 주말' 진행

군산시는 지난 3일과 4일 추석을 맞아 '술 빚는 주말' 양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수제 청주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및 지역 내외 청년을 모집해 구)시청 광장(우천시 근대교육관)에서 가족 친구에게 선물할 술을 직접 빚으며 청주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청년기업 (주)지방의 '술 익는 마을'은 군산의 전통산업이었던 양조 산업을 재조명해 육성시키고자 하는 로컬기업이다. 쌀 수탈기지였던 군산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지역민의 애환이 '백화수복'이라는 술 한 잔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이 지역의 브랜드 스토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다시 군산을 '양조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교대 교직원 5명, 발전기금 기부

전주교육대학교 교직원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기금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배성중 기록연구사, 김정호 공업주사, 최도영 행정주사, 박민아 행정주사보, 양희정 주무관 등 5명이 각 100만원씩 모아 대학발전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모두 10년 넘게 전주교대에서 근무하며 밝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헌신적으로 대학 운영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직원을 대표해 배성중 기록연구사는 "교직원들의 기부가 기폭제 역할을 해 발전기금 모금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후배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대학이 되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잘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대학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까지 해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 있을 개교 100주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창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등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민의 작은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시장 상인들을 위해 고창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임정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질 좋은 농·특산물과 차례 용품을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수확기 농작물 및 각종 시설물 재해예방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의회, 사회복지시설 · 군부대 위문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5일,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평기 의장과 이미선 부의장은 관내 21개소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전평기 의장은 "늘 우리 곁에서 이웃을 위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이웃과 훈훈한 정 나눠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과 홀몸 어르신 3가구를 방문해 200여만 원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남원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이백면)과 모두재가노인복지센터(왕정동)를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쓸쓸히 명절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외로움을 달래드렸다.

이충호 남원지사장은"공사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재난 · 재해예방 위한 봉사정신 격려

군산시가 재해예방에 앞장선 시민의 봉사정신을 격려하기 위해 모범시민상을 수여한다.

시는 5일 재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시민 정민(42, 미룡동)씨에게 모범시민상을 표창했다.

정씨는 지난 8월 11일 호우특보 발효 시, 군산대학교 앞 도로로 침수가 염려되자 새벽부터 가게 출근 후 빗속에서 각종 쓰레기로 막힌 배수로를 솔선 수범으로 청소해 인근 20여개 상가의 침수 피해를 예방했다.

정씨는 군산대학교 앞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평소에도 재난·재해예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으며 이번 솔선수범으로 인근 도로 침수는 물론 인근 상가 침수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시민상을 수상하게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데 앞장선 수상자분을 통해, 군산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에서도 각종 재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정읍시 안정남 엘디마트 대표, 지역인재 장학금 기탁

정읍시 내장상동에 소재한 엘디마트 안정남 대표가 5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안정남 대표는 정읍 내장상동과 전남 장흥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어린이날과 성탄절에는 지역 내 어린이와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직접 선물을 나눠주며 지역사회를 위해 끊임없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선행과 나눔 운동 실천의 공으로 지난 8월 2022년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 부문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8년 신지식인 상, 2019년 강소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정남 대표는 "기부하고 봉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상생발전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